

# 北 내일 36년 만의 당대회... 김정은 우상화 무대

### 김일성·김정일 수준까지 격상

### 중국 등 불참 집안 잔치 될 듯

북한은 오는 6일 개막하는 제7차 노동당 대회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우상화의 무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36년 만에 개최되는 당 대회에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려면 김 제1위원장의 위상을 김일성·김정일 수준까지 격상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4일 "2월 11일 방영된 조선기록영화 광명성 4호 성과적 발사의 마

지막 영상에 김일성, 김정일의 태양상과 유사한 형태의 김정은 태양상이 최초로 등장했다"며 "이 기록영화는 이후 조선중앙TV를 통해 16회 방영됐고, 모란봉악단의 공연 배경 스크린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당 대회 이후에는 제대로 된 김정은 태양상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 대회를 계기로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우상화가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은 7차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본격화를 알리고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이룩한 김정은 집권 5년의 지적을 과시해 김정은을 김일성·

김정일 수준까지 격상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당 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이번 7차 당 대회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의 제도적 완성을 기하는 한편,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도모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실제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대회 개최를 이틀 앞둔 4일 1만7700여 자가 넘는 '혁명의 길 끝까지 가리라' 제목의 정론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21세기의 위대한 태

양"이라고 칭하며 집권 5년간의 성과를 선전했다.

이 신문은 당 대회에 즈음해 각국에서 김 제1위원자에게 축전을 보냈다는 소식도 이날자 1면 머리기사로 배치했다.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이란이슬람교연합당, 네팔노동자농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몽골 민족민주당 총비서, 방글라데시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이 김 제1위원자에게 축전을 보냈다.

신문은 하지만 '경제, 사회, 경제, 고위인사들'이 축전을 보낸 20여개 국가에 중국을 포함하면서도 공산당을 비롯한 중

국의 별도 단체나 단체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7차 당 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당 대회는 118개국에서 177개 대표단이 참여한 1980년 10월 6차 당 대회와 달리 집안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7차 당 대회는 오는 6일 시작해 9일 폐막할 것으로 관측된다. 3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당 대회 참가자들은 지난 1일 평양에 집결해 3일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연합뉴스

## 伊, 침몰 난민선 인양 재개 시신 수백 구 잔류 추정

이탈리아 해군이 작년 4월 지중해에서 침몰해 수 백 명의 사상자를 낸 난민선을 인양하는 작업을 재개한다.

이탈리아 해군은 안전한 봄으로 접어들며 기상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4일부터 난민선을 건져 올리는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길이 30m의 바지선과 특수 크레인, 잠수부들을 동원해 침몰한 선박을 인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배는 작년 4월 최소 800명의 난민을 태우고 가다 포르투갈 상선과 충돌하며 리비아 연안에서 130km 떨어진 수심 370m 해저에 가라앉았다. 당시 충돌 충격으로 승객이 한쪽으로 쏠리며 배가 뒤집힌 채 가라앉은 까닭에 생존자가 고작 28명에 그쳤다. 사고 당일 50구의 시신이 발견됐고, 추후 이탈리아 해군이 169구의 시신을 건져낸 것을 감안하면 배 안에는 여전히 수 백 구의 시신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탈리아 해군은 배를 끌어올리는 데 약 50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양된 배는 오는 9일께 시칠리아 섬에 있는 나토 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대학 각지에서 파견된 법의학자 20명도 이번 작업에 참여해 DNA 샘플 채취 등의 방식으로 수습된 시신의 신원 확인에 나선다. 신원 확인 작업을 마친 시신은 시칠리아의 공동 묘지에 매장된다.

연합뉴스

## 김일성 '위대한 수령' → 김정일 '공화국 영웅' → 김정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을지 주목된다.

'위대한 수령'으로 불린 김일성 주석이 3차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차례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지만, 김 제1위원장은 지금까지 한차례도 부여받지 못했다.

노동당 제1비서를 겸하고 있는 김 제1위원장이 할아버지(김일성)와 아버지(김정일)와 동등한 반열의 리더십을 과시하려면 공화국 영웅 칭호가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칭호가 없는 '백두혈통'의 후광에 의존하는 기존의 통치에서 벗어나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4일 "현재 김 제1위원장이 자신을 지칭하는 '김정은 조선', '김정은 강성국가'라는 표현을 허용한 것은 (자신을)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동일 선상에서 보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김 제1위원장이)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7차 당 대회 개막 전날인 5일에 받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당 대회 마지막 날에 진행되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최근 김 제1위원장에 영웅 칭호를 부여하기 위한 정치작업에 부쩍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지난 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인민이 드린 칭호'라는 글에서 "1974년 70일 전투의 성과는 장군님(김정일)의 위대한 업적과 정력적인 사업 성과로 1975년 2월 15일 (김정일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해드릴 데 대한 결정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영웅 칭호는 '공화국 영웅' 칭호와 '노력영웅' 칭호로 구분된다. '공화국 영웅' 칭호는 6·25전쟁이 시작된 1950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제정됐으며 '노력영웅' 칭호는 1951년 7월 17일 제정됐다. 두 칭호는 '국기훈장 제1급'과 금메달, 표창장 등이 함께 수여된다.

연합뉴스

## 中 정치평론가 "김정은 정권 길어야 15년"

중국의 유명 정치평론가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10년에서 길어야 15년 내에는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중시하며 북한의 '급변시대' 논의를 금기시해 온 중국에서 이같은 전문가의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4일 중국 씨우후(搜狐)망에 따르면 중국 기관지 학습시보(學習時報) 부편집장 출신의 정치평론가 덩위원(鄧偉文)은 최근 군사사이트 테웨이(鐵血)군사망에 올린 기고문에서 "만약 평양(북한)이 유엔의 제재 하에서 타협하지 않고 해결 방식을 찾는다면 조선(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역사는

김정은에게 시간을 많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씨 일가가 북한을 통치할 시간은 10년 정도일 것이며 길어봤자 15년일 것"이라며 "그 시기 안에 붕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그 근거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시행되면서 북한 내부 경제와 민중의 생활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현재의 문제는 북한 혹은 김씨 정권이 어떤 방식으로 붕괴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몇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연합뉴스

## "사우디 안전 조치 필요"

### 이란, 성지순례 금지할 수도

이란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메카로 성지 순례하는 이란 무슬림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올해 성지순례를 못 할 수도 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호세인 자베리 안사리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사우디가 하지(성지순례)를 책임지는 정부로서 순례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란은 하지에 참가하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성지순례기구는 지난해 9월 성지순례 중 메카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올해 이란인의 원활한 성지순례를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사우디 현지에서 당국과 협상 중이다.

성지순례기구 협상단은 지난달 28일 "사우디 관리들이 이란 성지순례객 입국에 대한 논의를 계속 방해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나타내면서 협상이 교착상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쿠바에 부는 변화의 바람... 도심 한복판 사벌 패션쇼

쿠바 아바나의 구도심 프라도 거리에서 3일(현지시간) 세계적 명품 사벌 패션쇼가 열려 모델들이 패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의 신작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사벌이 중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에서 이런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 그동안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장면이 신기해하며 즐기는 모습이었다.

연합뉴스

## 모델 지리산 온천지구내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10억 (일시불 조정가)
- 리모델링 공사비 4억 별도
- 리모델링 후 연 4억원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여수, 대지매매

- 전남 여주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5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용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 임대중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오천경매

- ▶ 비법 배우면서 투자하실분!
- ▶ 특수 물건과 NPL만 전문취급
- ▶ 교육비 1200만원
- ▶ 예약 상담 필수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